

‘한 권의 책, 리더의 말과 글이 된다’

신간도서 ‘대통령의 독서’ 출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는 책과 연결된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사내라면 모름지기 평생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서양에는 “모든 지도자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All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파병을 결정했던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남긴 이 문장은 몇 해 전 “책 읽는 사람이 지도자(Readers are leaders)”라는 표현으로 변주되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독서를 멀리하는 대통령을 꼬집는 미국 시민사회의 캠페인이었다.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는지 늘 궁금해하고, 편향되고 비합리적 지도자의 언어로부터 독서의 부재를 읽어내며, 대선 후보의 추천 도서를 유심히 살펴는 검증 관행을 치르는 우리 사회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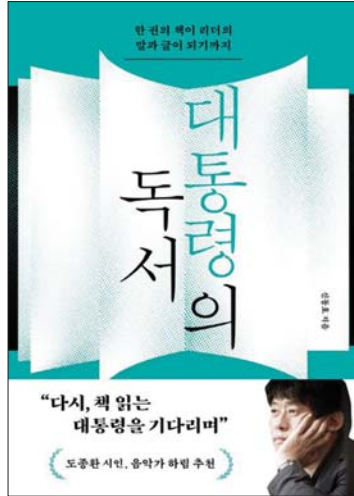
지도자와 책을 긴밀하게 생각한다.

책 ‘대통령의 독서’(한겨레출판사)는 역대 대통령 연설문, 담화문, 기고문에 담긴 독서의 자취를 따라가며, 어떤 책이 대통령 생각의 씨앗이 되어 그의 말과 글로 탄생했는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지도자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의 토대가 됐는지 그 경로를 살펴본다.

청와대 연설비서관 5년을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과 메시지 작성을 보좌한 시인 신동호는 이 책에서 애서가로 유명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을 다수 소개한다.

저자는 현장 경험, 자료 조사, 연설문 전문과 발췌문을 살피며 신뢰받는 언어의 비결을 밝힌다.

/뉴시스



대통령의 독서 표지



국립민속국악원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국악 교육 프로그램 ‘틴틴창국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악 아름다움 · 매력에 퐁당 빠져요”

국립민속국악원, 초등학교 대상 ‘틴틴창국교실’ 수강생 선착순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국악 교육 프로그램 ‘틴틴창국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국악을 배우고, 창극 ‘춘향전’을 통해 협력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며, 2025년은 판소리 ‘춘향가’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창극 대본 연습과 판소리, 민요, 전통 장단을 배우며 국악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육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 동안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창극 연습실과 예원당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2월 15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열리는 수료 발표회로, 수강생들은

창극 ‘춘향전’ 공연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잊지 못할 겨울방학의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2017년생~2012년생)으로 정원은 선착순 20명이며,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진행, 수강료는 5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장악과(063-620-2319)로 문의하면 된다./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틴틴창국교실은 아이들이 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국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촌마을 양쌍복 작가,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돌 모자이크 벽화 · 기린 조형물 조성
산촌마을 농촌관광명소 발돋움 기여

남원시 수지면 산촌마을 양쌍복 작가가 시사투데이가 주최 ·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2024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양 작가는 돌 모자이크 벽화를 통해 산촌마을을 농촌관광명소로 발돋움하게 했다. 특히



양쌍복 작가

지난달에는 수백 개의 돌을 붙여 높이 9m, 폭 4.5m 달하는 기린 조형물을 마을 입구에 세웠으며, 이 조형물은 현재 산촌마을의 상징 조형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적 가치를 창출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양 작가는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미려하나마 마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작가의 작품과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성과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진경여고, ‘공연도 즐기고! 기부도 하고!’

교내 음악회 열고 입장료 대신 받은 190만원 상당 라면 기탁



황등면 행정복지센터는 진경여자고등학교(교장 조정곤)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190만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경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지역 주민을 위해 교내에서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대신 라면 다섯 봉지씩을 받아 기탁품을 마련했다.

진경여자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시에 이웃을 돕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하명남 황등면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부에 감사하고, 지역사회와 하나 된 나눔 활동에 감동했다”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올해도 나눔의 활기가 넘치는 황등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한 · 중 · 일 3국 협력 강화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 · 중 · 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 · 중 · 일 3국은 ‘제4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 ·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 후자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선정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 예술 ·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 · 중 · 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